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류 정 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경제사상리론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에 관한 사상리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페이지)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높이 발동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의 창조적능력과 열의를 적극 발양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발전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의 첫 시기부터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과학원을 창립하시여 과학연구의 전당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당과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였다.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 밑에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고 연구개발핵심력량이 자라났으며 첨단산업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은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사상리론이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이라는데 있다.

과학기술은 우선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립경제의 토대는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밑천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하여도 남에게 예속된 경제는 절름발이경제로밖에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는 경제강국을 절대로 건설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강력한 국방력도 마련하고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도 이룩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고립압살시키려고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압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였지만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자기의 자립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그처럼 어려운 시련을 헤쳐오면서도 과학기술발전에서 한걸음도 멈춰서지 않았다.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한것이 우리 인민이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이 안겨준 배짱과 담력으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왔기에 우리 인민은 핵심기초기술, 우주기술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우리의 경제는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경제로 위용떨칠수 있게 되었다.

력사와 현실은 과학기술발전에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은 또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된다.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필요한 조건들이 원만히 보장되어야 한다. 원료와 자재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로력과 설비 등도 원만히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기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과학기술발전이며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마음먹은대로 모든것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양양을 일으킬수 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세상에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고 하여도 종자문제, 재배 및 사육기술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하며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지식경제시대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이라는데 있다.

과학기술은 우선 지식경제강국의 기술적기초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경제시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 그 적극적인 활용에 의

하여 경제가 비약적으로 장성하는 시대이다. 물질자원을 경제발전의 기본원천으로 하던 기계제산업시대와는 달리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자원이 경제발전의 기본자원으로 리용된다.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에 기초한 지식산업이 빨리 발전하면서 제품개발과 생산에 대한 지식의 기여정도는 지난 20세기초의 5~20%로부터 21세기초에는 80~90%로 높아지고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지식경제시대의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고있는 지식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발전에 국가적힘을 집중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과학기술강국,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이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다.

과학기술은 또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나라의 경제토대를 지식경제시대의 면모에 맞게 일신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다는것은 말그대로 과학기술과 생산의 구분이 따로없이 량자가 철저히 밀착되어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생산은 독자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서로 떼수없이 련관되어있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 이전시기에 과학과 기술, 생산은 비교적 상대적인 독자성이 뚜렷하였고 그것들사이의 간격도 뚜렷하였다. 지난 20세기 중엽까지만 하여도 새로운 과학지식이 기술발명으로 전환되자면 한두세대의 기간이 필요하였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과 생산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수년 지어 몇달로 줄어들고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는것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로,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는 지식경제시대에 과학기술과 생산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틀어쥐고 밀접히 결합시켜나갈 때만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지식경제로 일신시킬수 있다.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결합시켜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것이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며 과학기술인재들의 지능로동이다. 이로부터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식 특히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리용한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제품개발주기를 극력 줄이면서도 최대한의 경제적실리를 얻고있다.

연구개발된 과학기술이 리론적으로 아무리 가치가 크다고 하여도 생산실천과 동떨어져서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수 없다. 모든 부문에서 최신헌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면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일체화하여 경제의 면모를 지식집약형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과학기술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지식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침략에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는것이 과학기술을 통한 지

배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을 걸어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도입되지 못하게 책동하고있다. 제2의 《코름》인 《와썬나협정》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반제적립장이 강하고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봉쇄가 얼마나 악랄한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 정보기술발전에서 차지하는 저들의 일시적인 우세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의 도구로 리용하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최첨단과학기술, 정보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높은 발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되고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이 주도적역할을 하는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훌륭하게 일떠세우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은 최첨단돌파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과 더불어 오늘 우리모두가 경제강국건설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다.